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현 경 실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유학기제 음악 선택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현황 및 교사인식조사

201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신 은 비

자유학기제 음악 선택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현황 및 교사인식조사

현 경 실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음악교육전공

신 은 비

인 준 서

신은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5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이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자유학기제 음악 선택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현황과 교사인식을 조사하여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현직 음악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인터뷰는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엑셀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을 통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지역 인프라 활성화 및 교원연수의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 내 학교의 연계, 혹은 지역 내 교육청이나 청소년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이 언제든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연수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효율적인 음악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 충분하다고 느꼈으나 여전히 음악프로그램 운영에 최적화 되어 있는 활동 장소가 부족하고 음악 강사를 채용하는데 한계를 느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 사회의 연계를 통해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음악프로그램을 위한 강사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객관성이 높은 명확한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자유학기 선택 음악프로그램에서 교사들은 서술식으로 기입하는 과정평가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자유학기제 취지에 맞는 종합적 평가를 위해 명확한 평가 매뉴얼을 제공하거나 평가우수 사례집과 같은 교사들의 평가 부담을 덜어줄 검증된 평가의 지표가 필요하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문제	4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자유학기제의 이해	5
2. 자유학기제 추진과정	7
3.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8
4. 자유학기제 관련 해외사례	10
5. 선행연구 고찰	15
III. 연구방법	21
1. 연구대상	21
2. 연구도구 및 질문 사항	23
3. 연구방법	25
4. 연구 절차	26
IV. 연구결과	28
1. 자유학년제 음악프로그램 운영 현황	28
(가) 프로그램 계획	30

(나) 프로그램 운영	37
(다) 프로그램 평가	47
(라) 프로그램의 영향	52
(마) 교사들의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 운영 경험	57
2. 자유학년제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인식	58
(가)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58
(나)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64
V. 결론 및 제언	68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사항	21
<표 2> 인터뷰 질문 사항	23
<표 3> 연구 절차	27
<표 4> 음악 프로그램 운영 기본사항	28
<표 5> 교사들이 직접 운영한 프로그램	37
<표 6> 직접 지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39
<표 7> 교사들의 티칭노하우	40
<표 8> 프로그램별 활동 장소	45
<표 9> 음악프로그램 이전 운영 경험	57
<표 10>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과 이유	5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직업세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스스로 여러 지식을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시대를 반영 하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였다.¹⁾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 강화,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하고,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고, 과정 중심평가를 강화하여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많은 교육정책 중 하나가 바로 자유학기제이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이다.³⁾ 이러한 자유학기제는 2012년 대선 당시 선거 공약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아주는 교육을 하겠다는 자유학기제가 등장하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2012년에 발표 된 OECD 교육지표⁴⁾에 따르면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PISA)에

1)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고시 제 2015-74호, p.2.

2)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고시 제 2015-74호, p.3.

3)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p.6.

4) 한국교육개발원(2014). OECD 교육지표, 통계자료 SM 2014-08, p.222.

서 대한민국의 수학성취 평균점수는 554점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2014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⁵⁾에 따르면 2012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주관적 행복지수는 71.4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연구에 따르면 성적에 대한 압박과 학습 부담이 너무 커서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44%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적이 좋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11.9%에 그쳤다. 이는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요소가 성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200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진로교육실태조사 보고서⁶⁾에 따르면 중학생의 34.4%가 장래희망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장래희망을 찾지 못해서’가 34%로 가장 많았고,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몰라서’,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몰라서’가 각각 24%, 17.7%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학습 부담을 줄여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 자신에게 맞는 적성과 진로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주요 교육정책으로 자유학기제가 채택되어 시범 운영되면서 현재까지 시행되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증명하듯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발표한 2016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 결과⁷⁾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자유학기제 실행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학기제의 활동 영역은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이 있으며 음악 프로그램은 보통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활동에서 운영된다. 이러한 영역에 포함되는 자유학기제 음악 선택 프로그램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운영되는 자유학기제의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현직 음악교사들의 인식조사와

5) 염유식(2014). 2014년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보고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pp.3-24.

6) 고재성(2008). 진로교육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pp.23-25.

7) 꿈끼, 자유학기제 소개, 2019.05.09.,

http://www.ggomggi.go.kr/page/new/notice/introduce/page_new_introduce.

요구조사를 통해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타 교과에 비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음악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담론이 현저히 적다.⁸⁾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 지역의 중학교 현직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현황과 인식조사를 심층인터뷰로 실시하여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데 있다.

8)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기준(검색일 2019.06.09.)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 검색 시 관련 논문은 총 76건이다. 그러나 76건 중에서 대부분은 음악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논문이었고,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인식조사와 관련된 논문은 5건에 그쳤다. 5건 모두 설문지 조사가 주된 연구방법이었으며 인터뷰조사를 하는 경우 자유학기제 인식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 정도였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지역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의 운영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경기도 지역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위한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경기도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임의로 연락하여 응답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일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둘째, 경기도 내 여러 지역의 학교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지역 간 인식의 결과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자유학기제의 이해

(가) 자유학기제 개념 및 추진배경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⁹⁾ 이정인, 유재봉(2016)은 자유학기제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자유학기제의 자유는 소극적으로는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적극적으로는 행복한 학교생활, 학생의 꿈과 끼 찾기,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누리는 자유를 의미한다.¹⁰⁾

이처럼 지필고사로부터의 자유, 행복한 학교생활, 학생의 꿈과 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자유학기제의 출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과열된 입시위주 경쟁으로 인한 주입식·암기식 교육으로 OECD 교육지표¹¹⁾ 기준으로 수학성취 평균점수가 554점으로 OECD 가입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학습에 대한 흥미도, 행복지수면에서는 가장

9)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p.6.

10) 이정인, 유재봉(2016). 자유학기제의 ‘자유’의 의미와 교육적 방향 탐색, **교육학연구**, 54(4), p.6.

11) 한국교육개발원(2014). OECD 교육지표, 통계자료 SM 2014-08, p.222.

낮은 점수로 OECD국가 중에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진로교육실태조사 보고서¹²⁾에 따르면 중학생의 34.4%가 장래희망이 없다고 답했고, 이에 대한 이유로는 ‘장래희망을 찾지 못해서’ (34%),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몰라서’ (24%),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17.7%)등 자신에 대한 탐색이 부족한데서 오는 이유들이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중학교에서 장래희망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32.3%로 고등학교 때까지 지속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의 꿈과 행복을 찾고,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자유학기제가 2013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42개교의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나) 자유학기제 추진목적 및 기본방향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유학기 운영계획에 따른 자유학기제의 추진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고 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 계기 제공
2. 지식과 경쟁 중심 교육을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으로 전환
3. 학교 구성원 간 협력 및 신뢰 형성, 적극적 참여 및 성취 경험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교육 실현¹³⁾

이에 따른 자유학기제의 기본 방향은 집중적인 진로수업과 체험을 실시하여

12) 고재성(2008). 진로교육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고용정보원, pp.23-25.

13)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p.6.

초등학교(진로인식) - 중학교(진로탐색) - 고등학교(진로설계 및 준비)로 이어지는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참여 및 활동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교육과정편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¹⁴⁾

2. 자유학기제 추진과정

자유학기제는 2012년 대선 당시 선거 공약으로 발표되며 처음 등장하였고 이후 주요 교육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면서 2013년 5월 28일 공식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계획(안)’이 발표되었다.

2013년 42개의 연구학교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자유학기제 연구·희망 학교가 811개교에서 운영되었다. 2015년에는 연구·희망 학교가 2,551개교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 11월 25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전국의 3,213개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 되었고,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학교가 80개교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2017년에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연구·시범학교가 406개교로 확대되었고, 자유학기제 확대·발전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50-4)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이 발표되었다.¹⁵⁾

한편 경기도는 2017년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연계 자유학기의 경기 자유학년제를 도입했고, 2018년에는 1학년은 자유학년제(자유학기+자유학기), 2학년은 연계 자유학년제(연계 자유학기+연계 자유학기)를 실시하며 점차적으로 자유학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¹⁶⁾

14) 교육부(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p.3.

15) 교육부(2017).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 p.2.

3.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

(가)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모형

자유학기제는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으로 총 4가지 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4개 영역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교과시간 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자유학기제의 경우 1학기에 170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¹⁷⁾

진로탐색 활동은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 학습과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직업인 초청강연, 포트폴리오 제작 활동, 직업 탐방, 현장체험 활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주제선택 활동은 범교과의 영역에서 교과를 다양하게 연계하여 개설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스마트폰 앱 개발, 인성교육, 웹툰 만들기, 금융·경영교육, 드라마와 사회 등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개설되어 자유롭게 운영되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특기 및 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활동으로 댄스부, 방송부, 사진부, 밴드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예술·체육활동은 음악, 미술, 체육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잠재된 능력을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벽화그리기, 축구, 스포츠 리그와 같은 프로그램 등이 있다.¹⁸⁾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상세하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할 것을 강조하며 자유학기 운영모형에 대한 교육과정을 대강화하여 제시했다.

16)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2017). 2018 경기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 p.10.

17)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p.8.

18) 교육부(2015). 위의 자료, p.8.

평가 부분에서는 특정 기간에 실시하는 총괄식 지필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자유학기의 평가는 고등학교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자유학기 내의 활동 내역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학생부의 교과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서술식으로 기재할 것만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성취 평가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경기 자유학년제¹⁹⁾

경기도는 현재 모든 지역의 학교에서 자유학년제와 연계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으로 자유학기 활동을 일 년에 221시간 이상을 운영하는 것이다. 주제선택 활동은 1,2학기 모두 필수로 운영해야 하며 1학기에 170시간, 2학기에 51시간 혹은 1학기에 102시간, 2학기에 119시간 등 학부모, 교사 등의 학교 구성원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연계 자유학년제란 2학년 혹은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자유학년제 이후에도 자유학년제의 취지를 살린 활동중심, 배움중심 그리고 과정중심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발전된 형태이다. 연계 자유학년제의 영역은 주제선택 중점 연계 활동, 진로탐색 중점 연계 활동, 예술·체육 중점 연계 활동, 동아리 중점 연계 활동으로 학기당 51시간 이상을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계 자유학년제는 자유학기의 활동 영역에서 주제선택 활동을 필수로 2개 이상의 영역을 운영하되 반드시 활용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연계 자유학년제는 지필평가가 진행되지만 횟수를 줄여 실시하고 수행평가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교과성취도 산출은 물론, 모든 평가가 고

19)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2017). 2018 경기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 요약.

입내신에 반영된다는 것이 자유학기제와 다른 점이다.

4. 자유학기제 관련 해외사례

(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아일랜드의 교육과정은 초등, 중등, 고등 교육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초등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되고, 중등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고등교육과정은 대학에서 받는 교육과정이다.²⁰⁾

아일랜드의 경우 중등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 중 45%정도가 대학에 입학하며 나머지는 국가가 장려하는 직업전문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아일랜드의 대학입학은 고교 졸업 시험 점수로 합격이 결정된다.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입학을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여 사교육기관에 해당하는 ‘Grinds School’, ‘Institute of Education’ 등에서 졸업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위해 일부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²¹⁾

이렇게 학생들이 대학입학을 위한 시험 위주의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많은 부작용으로 아일랜드 정부는 1970년대 초반에 1년 동안 학생들의 자신의 직업과 진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전환학년제를 실시했다. 이러한 전환학년제는 아일랜드의 중등교육과정 4년차에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내외의 다양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²²⁾

20) 양소영(2014). *꿈의 수업 자유학기제, 아일랜드에서 찾다*, 서울:미디어숲, pp.24-25.

21) 양소영(2014). 위의 책, pp.28-29.

22) 양소영(2014). 위의 책, pp.35-40.

프로그램은 교내에 있는 TY(Transition Year) Core팀²³⁾이 함께 설계하며, 교과 담당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TY 코디네이터에게 전달하면 교과 간 중복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절차를 거치고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종합하고 조율하면서 만들어 진다. 그 외에 TY 코디네이터는 교사, 학생들과 전환학년제 교육과정에 대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 평가하며 교사, 학생 및 학부모에게 피드백을 받아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하여 내년 프로그램에 이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²⁴⁾

전환학년제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며 세부사항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전환학년제 기간 동안에는 필수 과목들(영어, 아일랜드어, 수학, 체육, 종교 등)은 공부할 수 있지만 졸업시험을 위한 공부 과정은 철저하게 배제된다. 전환학년제에 개설되는 각 과목들은 한 과목을 이수하면서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설계된다. 또한 시험이 없는 대신 자기주도 학습을 유발하는 체험위주의 학습활동(협동학습, 프로젝트학습, 체험학습, 등)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²⁵⁾

전환학년제는 9월을 시작으로 3개의 학기로 나뉘어 진행되고, 학생들은 각 학기가 끝날 때 마다 보고서를 제출하며 11월, 2월, 5월에는 외부 직업체험 기간을 갖는다. 수업은 선택과목과 필수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필수과목은 영어, 아일랜드어, 수학, 종교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며, 선택과목은 뮤직, 테크놀로지, 법체계 및 소송, 패션 디자인, 다양한 악기연주, 인형 만들기, 운전 이론, 요리, 사회 복지학 등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된다.²⁶⁾

아일랜드의 학교 및 교사들은 전환학년제의 성공을 위해 9월 학기가 시작되기 전 ‘전환학년 설명회의 밤’을 열어 학부모에게 전환학년제와 교육적

23) TY Core팀은 담임교사, TY코디네이터, 학년부장으로 구성 됨.

24) 양소영(2014). 앞의 책, pp.42-43.

25) 양소영(2014). 앞의 책, pp.61-63.

26) 양소영(2014). 앞의 책, pp.66-69.

성과, 그리고 선택과목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를 통해 학교는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기도 한다. 교사는 TY 코디네이터와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피드백을 받고, 학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주간 진행계획이나 진행 상황들을 학부모가 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27)

교육부에서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환학년 교사지원 사이트(www.pdst.ie)를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전환학년 운영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교사들에게 전문적인 연수를 제공한다. 또한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는 섹션을 만들어 놓았으며 그 밖에도 교육과정, 교육 매뉴얼, 평가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다.28)

무엇보다 아일랜드는 모든 국민들이 전환학년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기업체의 인프라 구축이 탄탄하다.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들과 연합하여 프로그램을 구축하기도 하며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도 구성되어 다양하고 질 높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일랜드 전환학년제를 참고한 우리나라 자유학기제의 경우에도 상향식 교육과정 개발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권장하고, 교사중심의 수업활동이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목적이 진로탐색과 핵심역량을 기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험이 없는 과정중심의 평가를 진행하는 등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27) 양소영(2014). 앞의 책, p.127.

28) 양소영(2014). 앞의 책, p.143.

(나) 덴마크 애프터 스쿨(After School)²⁹⁾

덴마크는 19세기 초 최초로 7-14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제도가 도입된 국가이다. 하지만 계몽주의 사상의 태동으로 의무교육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여긴 농민층이 국가의 교육 독점을 반대하면서 학부모와 교사가 정치적, 교육적으로 자유로운 형태의 독자적 교육기관인 자유학교(프리스콜레)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으로 1825년 애프터스쿨이 나타나게 되었다.

애프터스쿨이란 자유학교의 일종으로, 공립 기초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이나 직업학교로 진학하기 전의 1년 과정의 기숙형 자유학교이다. (Peterson & Poulsen, 2008)³⁰⁾ 애프터스쿨은 학교장, 운영위원회, 교사, 학부모의 의견과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이 구성되며 14-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예체능이나 특별한 영역에 재능이 있는 학생 혹은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목적으로 1-2년 간 자유롭게 자아를 찾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간을 갖는다.

애프터스쿨은 일반교육도 다루지만 주로 음악, 미술, 체육 등과 같은 감성교육과 프로젝트 학습 등의 학생 참여형 수업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와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애프터스쿨은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졸업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어 이를 대비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학교의 형태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립학교의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전환학년제와 자유학기제와 구분된다. 그렇지만 1-2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갖으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구현한다는 큰 맥락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29) 김나라, 최지원(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27(3), pp.207-208 요약.

30) 김나라, 최지원(2014). 위의 논문, p.207 재인용.

(다) 스웨덴 프라오(PRAO)³¹⁾

프라오 (PRaktisk ArbetslivsOrientering)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2, 3학년에 해당하는 8학년, 9학년 사이 2주간의 짧은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기업의 현장에서 직업을 직접 체험하면서 직업세계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웨덴은 1950년대부터 공교육에서 직업체험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여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유는 공교육이 학생들의 사회적 발달과 급변하는 직업세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에 있었다. 1980년대에는 공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6주에서 10주 정도의 직업체험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제정하였다. 7세-12세의 아동들은 그룹을 이루어 부모님의 직장생활을 관찰하거나 따라해 보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고, 12세-16세의 청소년들은 1주일 이상 사회서비스, 제조업, 상업 등의 기업체에서 직업체험을 했다. 프라오는 직업체험활동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내용을 교과와 연계하여 가르치기도 하며 2002년에는 96%의 학교가 프라오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제도이다.

스웨덴의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 흥미와 구체적인 진로를 찾고 미래 직업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와 공통점을 가지지만 프라오는 시행배경에 있어 학생의 직업체험에 초점을 맞췄고, 1-3주라는 시간으로 매우 짧은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와 구분된다.

31) 김나라, 최지원(2014). 앞의 논문, pp.208-210 요약.

5. 선행연구 고찰

음악과의 자유학년제에 관련한 연구로는 문경화(2018)³²⁾가 있고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연구로는 신지원(2016)³³⁾, 조슬기(2017)³⁴⁾, 강해인(2018)³⁵⁾, 정진경(2018)³⁶⁾이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교사인식에 대한 연구로는 정연근(2015)³⁷⁾이 있다.

문경화(2018)는 경상남도 지역의 음악교사 59명과 학생 404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음악수업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신지원(2016)과 조슬기(2017)의 설문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자유학기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은 주 1~2시간 운영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답하였으며 학생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으로 뮤지컬, 난타, 합창을 꼽았다. 또한 교사들은 자유학기 음악교과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연간 3~60시간의 연수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확보와 학습공간 마련 그리고 악기 등과 같은 학습자료의 구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2) 문경화(2018). 자유학년제 음악수업에 대한 음악교사와 중학생들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3) 신지원(2016). 2015년 서울형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현황 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 조슬기(2017). 서울·경기 지역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의 실태 및 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강해인(2018).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교 음악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정진경(2018).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 분석-2017 울산광역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 정연근 외 6명(2015). **중학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pp.113-149.

신지원(2016)은 2015년 서울시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의 음악교사 68명을 대상으로, 음악교육의 운영현황과 자유학기제 음악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를 조사했다. 이를 위한 연구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했으며 자유학기제 관련 공문과 2015 교육과정 그리고 2014 연구·희망학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지를 직접 제작했다. 그 결과 교사들은 자유학기제가 음악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해 이를 학교 음악수업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으며, 자유학기제가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율 프로그램은 외부강사에 의존하여 수업이 이루어 졌고, 이때 음악교사와 외부강사와의 수업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동아리 프로그램에서 자유학기 운영 전과 후를 비교 했을 때 질적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유학기제를 위한 학교 내부 및 외부 환경의 조성 정도에 대해 대부분의 학교가 음악 수업을 위한 적절한 환경과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있었지만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수업을 위해 가장 부족한 것이 ‘예산지원’ 과 ‘전문 강사와 인프라 활용의 어려움’ 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의 운영정도에 대해 교사들은 업무과중 및 자유학기제의 수업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조슬기(2017)는 서울·경기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의 실태와 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음악프로그램 실태조사에서는 학교 알리미 및 각 연구대상 학교의 홈페이지에서 자료가 확인 가능한 학교 413개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교사 및 학생인식조사에서는 서울지역 2개교, 경기지역 3개교 총 5개교에서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을 경험한 중학교 2학년 학생 551명과 2016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학생은 20문항의 설문지, 교사는 총 11문항으로 구성된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학생설문지는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한 선행논문(황지연, 2016)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자유학기제 만족도 평가 설문지를 참고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교사 인터뷰 문항은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정책 및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 결과 학생인식조사에서 학생들은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의 시간에 대한 인식에 대해 74.8%가 ‘적당하다’ 라고 응답했으며, 일반학과 자유학기 음악수업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서는 59.1%가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고 40.9%가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학과 자유학기의 음악수업에 대해 차이가 있다고 답한 학생들 가운데 64.2%가 ‘일반학기의 음악 수업에서 하지 않았던 다양한 활동을 한다.’ 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의 전체 만족도 평균은 3.35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음악교사의 인식의 결과 대체적으로 자유학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일반학과보다 자유학기 음악 프로그램에 있어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도가 높아졌으며, 자유학기를 통해 학생들이 음악을 즐기며 자신감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가 적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으므로 자유학기의 취지를 살려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해인(2018)은 14개의 시·도의 음악교사 73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의 음악교육 운영 현황과 음악교사의 인식 및 문제점에 대해 연구했다. 이를 위해 설문지를 사용했으며 설문지는 2009 교육과정과 2013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연구 보고서(최상덕 외, 2012; 최상덕 외, 2014)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다. 그 결과 자유학기 중의 음악 교과수업에서 음악교사가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수업 내용은 ‘기악활동’ 이었으며,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내용은 ‘음악요소 및 개념’ 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유학기 활동의 네 가지 영역 중 진로탐색 활동과 주제선택 활동은 운영되긴 하나 많은 학교에서는 음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고, 예술·체육활동과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은 악기 배우기가 대부분이었으며, 합창과 서양악기 합주, 음악 감상, 뮤지컬 등의 활동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그 외의 활동은 소수 운영되거나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의 운영은 외부강사 및 교사 주도가 가장 많았으며, 자유학기 활동 개설 시 학생 수요조사를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 배정은 선착순 배정이 가장 많았다. 또한 자유학기 활동에서 외부강사 섭외는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섭외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강사 섭외 시 ‘지역 인프라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장 많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예술·체육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서 과반 수 이상의 음악교사들은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정진경(2018)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2017년도 울산광역시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과 2017년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들의 ‘교육계획서 및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총 63개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과 29개교의 자유학기 활동 내 음악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모든 자유학기제 시행 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운영학기를 1학년 2학기로 선택하여 실시하였고, 교육부가 제시한 교육과정 편성 예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49개교에서는 다양한 혼합모형을 적용했고, 14개교에서는 단일모형을 적용했다. ‘진로탐색 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 분석결과 29개교 중 4개교에서 음악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진로탐색 활동’에서 음악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 ‘주제선택 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 분석결과 29개교 중 10개교에서 음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예술·체육 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 분석결과 29개교 모두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지만 음악 프로그램 중 기악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활동 내용은 단순히 악기를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그쳤다. 또한 ‘예술·체육 활동’ 과 ‘동아리 활동’ 에서의 음악 프로그램 주제나 활동내용에 차이가 없었다. ‘동아리 활동’ 내 음악 프로그램 분석결과 29개교 중 19개교에서 운영되었다. 하지만 악기의 기초를 배우는 기악프로그램이 가장 많았고 이 외의 합창·감상 프로그램 등의 활동내용에 있어 ‘예술·체육 활동’ 과 차이가 없었다.

정연근(2015)은 중학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에서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실태 및 인식 분석을 통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와 희망학교 교사 1421명(음악교사 113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방안 모색을 위한 교사의 인식을 분석했다. 설문조사로 진행이 되었으며 설문지의 질문 유형은 교육과정 편성, 교수·학습 설계 및 운영, 평가 설계 및 운영, 자유학기 활동 편성·운영, 체험활동 설계 및 운영으로 구성하여 조사했다. 이 중 교수·학습 설계 및 운영, 평가 설계 및 운영, 자유학기 활동 편성·운영의 영역에서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질문을 중심으로 음악교사들의 인식을 요약했다. 먼저 교수·학습 설계 및 운영에 따른 음악교사들의 인식으로 학생 참여형 수업을 계획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즐겁고 적극적인 수업참여’ (54.0%)를 꼽았다.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한 결과로 학생들의 교과학습 동기가 높아졌는가에 대해서 ‘다소 그렇다’ (54.0%)가 가장 높았다. 다음은 평가 설계 및 운영에 따른 음악교사들의 인식이다.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에 실시하는 과정평가 및 형성평가의 효과에 대해서 교사들은 ‘다소 효과가 있다’ (54.0%)고 가장 많이 답했고, 자유학기 실시에 따른 중간 및 기말고사의 미실시로 인한 학력저하 우려에 대해서 46%가 ‘다소 공감한다’ 고 답했다. 또한 평가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결과를 정리

기록 하는 것' (33.6%)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술식 방법으로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것' (31.0%)이 높았다. 다음은 자유학기 활동 편성·운영에 따른 음악교사들의 인식이다. 자유학기 활동 운영의 가장 큰 교육적 의의로 음악교사들은 '학생 참여 촉진 및 다양한 활동 중심의 교육활동' (51.3%)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꼽았다. 이 외에 동아리 활동담당자와 예술·체육 활동 담당자로 '교사+외부강사'를 각각 53.1%, 66.4%가 답했다. 또한 자유학기 활동 편성·운영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예산 및 학교시설의 부족' (32.7%),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28.3%), '자유학기 활동 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 (16.8%)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사항으로 '예산 및 학교시설 등 물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음악교사들이 4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 물적·인적 자원 목록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 (28.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음악교사들은 자유학기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으나, 여전히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습공간 그리고 전문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연구의 대부분은 설문지 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중심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실태조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사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을 다루고자 한다. 현장에서 직접 음악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현직 교사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경기도 자유학기제 음악 선택 프로그램의 운영현황과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인터뷰를 통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지역의 616개교의 중학교에 임의대로 연락을 하여 인터뷰에 응할 수 있다고 답한 현직 음악교사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기본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사항

지역	교사	성별	세부 전공	교육 경력	학교 및 지역 특성
남양주	A	여	작곡	3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이나 이혼 가정이 많음.
	B	여	성악	5년	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이 전교생의 30%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이 많아 문화적 경험이 부족.
성남	C	남	트럼펫	5년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은 가정환경의 학생들과 어려운 학생들이 고루 섞여 있음.
	D	여	피아노	30년	경제적으로 중상위정도에 해당하는 가정이 많고, 대체적으로 학부모가 자녀의 학업에 관심도가 매우 높음.
안산	E	여	피아노	4년	다문화 학생이 많음
	F	여	피아노	3년	기초생활수급 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학생이 반에 1/3정도 되고, 학부모가 자녀에 대해 관심이 조금 덜 한 편임.
	G	여	가야금	1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연구학교. 어울림 프로젝트를 주제로 음악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음.

	H	여	피아노	5년	학교 근처에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주택이 공존해 있으며 교육적 기회가 풍부한 아이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섞여 있음. 또한 다문화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포천	I	여	성악	3년	아이들이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편임.
고양	J	여	피아노	4년	소프트웨어 중점학교.
	K	여	플루트	6년	신도시. 새 아파트에 모두 분양받아서 들어온 경우라 중상위정도의 가정환경. 지역 환경에 대한 만족도 학부모, 학생 모두 높음.
양평	L	여	피아노	4년	예술특성화학교로 오케스트라, 뮤지컬, 밴드부 등이 활성화 되어 있음.
용인	M	여	플루트	5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없음. 비슷하고 환경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
	N	여	피아노	25년	농·어촌 학교로 학생 수도 굉장히 적은 소규모 학교.
	O	여	피아노	2년	학구열이 중하정도로 높은 지역은 아님.

2. 연구도구 및 질문 사항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중학교에 재직 중인 음악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실태를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 질문은 자유학기제의 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한 조슬기(2017)³⁸⁾와 신지원(2016)³⁹⁾의 설문지와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회과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한 지서운(2016)⁴⁰⁾의 인터뷰 질문지, 그리고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유학기제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작성했다.

인터뷰의 핵심 질문 사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인터뷰 질문 사항

질문 영역	질문 내용
1. 일반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경력 및 전공 - 학교의 특색 - 음악프로그램 실시 학기 - 음악관련 프로그램 개설 유형 - 개설되어 있는 음악 관련 프로그램 - 직접 관리하는 음악 프로그램⁴¹⁾
2. 프로그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구체적 활동 내용 - 프로그램의 목표 및 목표 설정 이유
3. 프로그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의 결정 및 가장 고려하는 점 - 프로그램 계획 시 고려하는 점 - 계획서 작성 및 참고자료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수 경험

38) 조슬기(2017). 서울·경기 지역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의 실태 및 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9) 신지원(2016). 2015년 서울형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현황 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0) 지서운(2016).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회과 교사들의 인식과 사회과 교육의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학교 외의 지원 - 교재의 사용 - 강사채용
4. 프로그램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주당 시수 - 프로그램 지도 - 프로그램의 학생 수 및 프로그램 배정 방법 - 프로그램 운영 장소 및 환경의 적합성 - 기자재·악기 수량 및 관리상태의 적합성
5. 프로그램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 평가 기준 설정 시 고려하는 점 - 평가의 어려운 점 - 입시 미반영에 대한 생각 - 지필평가 미실시에 대한 생각 - 효과적 자유학기를 위한 평가의 방향
6. 학생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수업 효과 - 학생들의 반응 및 태도 -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과의 관계 변화
7. 교사에 대한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능력 향상 여부 - 교수 및 직업에 대한 성취감 및 만족도 - 체감하는 업무의 양
8. 교사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운영했던 자유학기 프로그램 - 효과적으로 운영됐던 프로그램과 그 이유
9. 교사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 - 자유학기제의 취지 및 운영 현황 - 자유학기제의 이점 - 자유학기 수업 방식과 교과수업 방식의 차이점 -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시 힘든 점 - 효과적 자유학기를 위한 개선점

41) 직접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란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 중 해당 교사가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강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나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3. 연구방법

녹음 된 자료를 전사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엑셀을 이용해 코딩과정을 거쳤다. 코딩된 자료를 통해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답변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언어코드를 바탕으로 코딩했고, 언어코드에 대한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나,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부장교사의 권유는 학교여건으로 분류했고, 본인이 하고 싶어서 계획했다고 한 답변은 교사여건으로 분류했다.

둘, 프로그램 계획 시 고려하는 점으로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답변, 다양한 장르 및 악곡 선정, 집중도 향상과 같은 답변들은 학생의 수준 및 흥미로 분류했다.

셋, 프로그램의 구체적 활동 내용에서 기본자세 및 연주법에 대한 답변은 악기 연주하기로 분류했고, 기악 합주 및 오케스트라는 합주하기로 분류했다.

넷, 발표회와 발표를 구분했다. 발표회는 공식적인 학교 행사, 발표는 교사가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한 평가의 한 방법으로 분류했다.

다섯, 프로그램 목표 설정에서 화음을 느낀다, 음악의 즐거움과 관련된 답변은 상상블의 즐거움으로 분류했고, 협동에 대한 답변은 핵심역량함양으로 분류했다.

여섯, 프로그램 목표설정 이유에서 성취감 및 뿌듯함과 관련된 답변은 심미적 경험으로 분류했다.

일곱,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서 다목적실, 시청각실, 오케스트라실, 밴드부실, 도서실 등 음악실과 일반교실을 제외한 교실은 특별실로 분류했다.

여덟, 학생에 대한 영향에서 성취감과 관련된 답변은 자존감 및 자신감 향

상으로 분류했다. 학생의 반응 및 태도에서는 흥미 있는 내용에만 집중한다는 답변은 집중도 낮음, 흥미 있어 한다는 답변은 집중도 높음으로 분류했다.

아홉,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답변으로 꾸준한 관심을 갖는다는 사례 및 연수 찾기로 분류했다.

열, 교사가 생각하는 자유학기 취지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와 관련된 답변은 행복한 학교로 분류했다.

열하나, 자유학기제의 개선점에 대한 답변으로 학생선택권 보장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와 같은 답변은 지원 확대로 분류했다.

4.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준비, 실행, 정리 세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준비 단계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기간으로 자유학기제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를 고찰했다. 이를 토대로 인터뷰 질문지를 제작했으며 제작과 동시에 연구 대상을 모집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 기간이라 업무가 많아 대부분의 교사들이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에 1차 모집에서는 8명에 그쳤다.

실행 단계는 2019년 2월부터 2019년 4월의 기간으로 1차로 모집한 8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고, 전사 작업을 거쳐 자료를 분석했다. 그리고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실시한 2차 모집에서 인터뷰 참여에 응한 7명을 대상으로 2차 인터뷰를 실시했고, 전사 작업을 거쳐 자료를 분석했다.

인터뷰는 면대 면 혹은 통화로 진행했으며 대면 인터뷰는 4명, 나머지는

전화 인터뷰를 실시했다. 교사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의 순서를 상황에 맞게 바꿔가며 진행했다.

정리 단계는 2019년 4월부터 5월의 기간으로 15명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절차

과정	연구내용	연구일정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 - 인터뷰 질문지 제작 - 연구 대상 1차 모집 	2018. 12 ~ 2019. 04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인터뷰 실시 - 1차 자료 분석 - 연구 대상 2차 모집 - 2차 인터뷰 실시 - 2차 자료 분석 	2019. 02 ~ 2019. 04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분석 - 결론 도출 	2019. 04 ~ 2019. 05

IV. 연구결과

1. 자유학년제 음악프로그램 운영 현황

본격적인 자료해석에 앞서 각 교사별로 운영했던 2018년도 자유학기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정리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 4>과 같다.

프로그램은 대부분 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이었으며 B교사의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J교사의 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뮤지컬)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1년 중 한 학기만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1학기에 진행한다고 답한 교사는 7명, 2학기에 진행한다고 답한 교사는 8명으로 비슷했다.

<표 4> 음악 프로그램 운영 기본사항

교사	자유학기 유형	운영 학기	주 시수	운영 형태 ⁴²⁾
A	예술·체육	1	2	간접
	예술·체육	1	2	직접
B	예술·체육	1	2	간접
	예술·체육	1	2	간접
	동아리	1,2	1	직접
C	예술·체육	1	2	팀티칭
D	예술·체육	2	1	직접
	예술·체육	2	1	간접
E	예술·체육	2	2	직접
	예술·체육	2	2	간접

F	예술·체육	2	2	직접
	예술·체육	2	2	담당X
	예술·체육	2	2	담당X
G	예술·체육	2	2	직접
H	예술·체육	2	3	팀티칭
	예술·체육	2	3	담당X
I	예술·체육	2	2	직접
	예술·체육	2	2	담당X
	예술·체육	2	2	담당X
	예술·체육	2	2	담당X
	예술·체육	2	2	담당X
J	예술·체육	1	2	직접
	예술·체육	1,2	2	담당X
	동아리	1	2	담당X
K	예술·체육	1	1	직접
	예술·체육	1	1	담당X
	예술·체육	1	1	담당X
L	동아리	2	2	직접
	동아리	2	2	직접
	동아리	2	2	직접
	예술·체육	2	3	간접
	예술·체육	2	3	간접
	예술·체육	2	3	간접
M	예술·체육	1	2	직접
	동아리	1	2	직접
N	예술·체육	1	2	직접
	예술·체육	1	2	간접
O	예술·체육	2	2	직접

42) 직접운영은 프로그램을 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형태, 간접운영은 강사가 맡아서 지도했던 형

(가) 프로그램 계획

1) 프로그램의 계획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단계이다. 프로그램을 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의 협의, 학교 여건 및 교사의 여건, 학생들의 수요 모두 고루 답변했다. 그렇지만 이미 학교에서 계획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진행했다고 답한 교사들도 있었다.

그저는 음악선생님으로서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저 혼자 결정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다른 음악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옆에 계시는 짝꿍선생님한테 의논을 드려보고. 그래서 주변에 동료 교사들과 함께 협의를 한 거죠. (성남, D교사)

프로그램이 결정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짤 때 어떤 것을 고려하는가의 질문에는 아이들의 수준 및 흥미, 차시별 계획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는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이 블록타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2시간 동안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경우 차시별 계획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하고 있었다. 이 외 야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I교사와 타악기 합주를 하는 O교사의 경우 아이들의 안전문제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생략)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애들이 사실 두 시간하면 기타를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 날은 레퍼토리도 한 시간하고 바꿔주고, 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집중도나 수업 시간. 뭐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 (안산, H교사)

태, 그리고 팀티칭은 강사와 함께 지도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아이들의 안전문제였어요. 중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손에 땀을 쥐여 주면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생략) (용인, O교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모든 교사들이 차시별로 간략하게 1-2장정도 작성한다고 답했으며, 참고 계획서도 따로 없이 직접 작성한다고 답했다. 강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먼저 프로그램 계획서를 받아 교사가 수정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A4지 한 장이면 돼요. 왜냐하면 간략하게 뭐... 그때그때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서 쓰기 때문에 한 장, 두 장 정도 돼요. (중략) 저희는 뭐 꼭 연습, 파트 연습 이런 걸 쓰는 거니까 그렇게 뭐 길게 쓰진 않아요. (용인, M교사)

기타에 대해서는 강사선생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사선생님한테 먼저 받아서 제가 그거를 시수를 보고 계획을 조금 조정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안산, H교사)

즉,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해 교사들은 교사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거나, 동료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이 확정 된 후 프로그램 계획 시 가장 고려하는 점으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들의 흥미 및 수준, 그에 따른 차시별 계획에 대해 고민을 한다고 답했으며, 이외에 학생들의 안전 문제, 강사 확보에 대한 문제도 고민한다는 답변도 있었다. 본격적으로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교사들이 차시별 목표와 활동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여 1-2장 정도로 작성한다고 답변했다.

2) 자유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수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있는 2015 자유학기제 운영 길라잡이⁴³⁾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수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중에서 모든 교사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자유학기제 관련 교원 연수’ 라는 항목이 있었다. 경기교육청의 최근자료인 2016 교육과정 정책 추진 계획⁴⁴⁾에서도 중학교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유학기제 운영 항목에서 ‘자유학기제 관련 교원 대상 연수’ 라는 이름으로 도교육청이 추진했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자가 필수연구라고 칭한 ‘자유학기제 관련 교원 대상 연수’ 는 자유학기제 관련 교원 대상 연수는 자유학기제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연수를 받은 교사는 각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달연수를 하고 있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는 자유학기 오리엔테이션, 생활기록부 작성방법, 자유학기 업무 진행에 필요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달연수를 받은 대부분의 교사들은 잘 모르거나,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필수로 들어야 되는 연수였으면... 아마... 교무회의 때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나진(웃음) 않아요. (남양주, A교사)*

한편, 이와 관련해 H교사는 자유학기제 교원대상 연수가 자유학기 운영 매뉴얼에 관련된 연수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하는 부분이었지만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학교에서는 사실 자유학기제를 할 때 시간표랑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렵거든요.

43) 경기도교육청(2015). 2015학년도 경기혁신형 자유학기제 운영 길라잡이, pp.9.

44)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2016). 2016 교육과정 정책 추진 계획, pp.30.

그런 거를 무조건 학생위주로 선택권을 존중해라 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아요.(생략) (안산, H교사)

이러한 점에서 교육청에서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유학기 사례를 통해 많은 교사들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연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은 프로그램을 위해 교사가 선택적으로 받은 연수에 대해 물어보았다. 연수를 받지 않았다는 교사들은 대부분 합창이나 기악합주, 오케스트라를 담당하고 있었고, 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뮤지컬 혹은 우쿨렐레나 기타와 같은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 연수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외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기타를 배운 교사도 있었고, 따로 개인 레슨을 받은 교사들도 있었다.

받은 적 있어요. 좀 알아야지 하니까. 근데 교사 연수도 있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배우고 그렇게 했어요. (안산, H교사)

개인 레슨을 받은 교사에게는 추가적으로 연수가 아닌 개인레슨을 택한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교육청에서 다양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교사의 개인적인 일정이나, 연수의 장소가 적당하지 않아 개인레슨을 택했다고 얘기했다.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는 있어도 갈 시간이 안 될 뿐더러... 현실적으로 학기 중에 갈수가 없어요. 연수가 많이 있지도 않고요. (남양주, A교사)

이와 같이 연수의 접근성이 좋지 않다면 교사의 개인적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연수를 듣는 것은 교사들의 선택이기는 하지만 자유학기제가 계속 운영되는 이상 이러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선택적으로 받은 연수에 대해 도움이 됐던 내용과 부족했던 내용에 대해 물어봤다. 이에 대해서는 연수를 받았던 모든 교사가 본인이 못하는 분야였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없었다고 답했다.

우쿨렐레를 제가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일단(웃음). 제가 연수를 통해서 우쿨렐레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직접 배우면서 과정에서 좋은 걸 따와서 가르쳤죠.(안산, E교사)

위와 같이 본인이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에서 연수를 받음으로써 운영하고 자 했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답변도 있었으며, 동시에 배우는 과정에서 느낀 교수법이 지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연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새로 개설되었으면 하는 연수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유학기 프로그램 사례나눔 및 그에 대한 교수법, 다양한 교육용 악기 사용법, 전자음악 작곡법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연수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답변들에서 교사들이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자유학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연계 활성화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있었다.

자유학기제에 진짜 써먹을 수 있을만한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나눔도 좋고... 또 사례나눔만 하면 제가 못하는 건 못 써먹잖아요. 그러면 사례나눔도 하면서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안산, H교사)

지역 간 연계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자유학기가 학교 간 연계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연계를 해서 자유학기를 탄탄히 진행하고자 하는 게 목표
잖아요. 근데 지역 간의 연계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중략) 그런 연
수... 지역 간 연계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포천, I교사)

3)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

공통적으로 학교에서는 프로그램 별로 미리 예산지원 계획서를 받아 예산을
분배하고 있었다. 한 프로그램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이 비
교적 적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에서 양보를 해 모든 프로그램이 부족함 없이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더라도 요청
을 하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답했다. 따라서 학교가 해주는 기자재
를 포함하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모든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배정이 다르게 와요. (중략) 특히 예술 활동은 대체적
으로 많이 써요. 악기 같은 것도 사면은 몇 십 만원이 금방 써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돈을 조금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배려해주면 그렇게 조정해서
썼던 것 같아요.(안산, H교사)

학교에게 원하는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질문에서는 현재의 지원에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한 교사들도 있었지만 음악 프로그
램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의 교실 부족 문제,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됐으면 좋겠다고 답한 교사가 있었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에 대한 사전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한 교사도 있었다.

(생략)사물놀이는 주변에 피해를 너무 많이 주니까 수업할 때. 사물놀이는 어
쩔 수 없이 음악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동시에 합창반이 수업을 할 때

는 합창반이 갈 음악실이 없잖아요. 그런 예러 사항이 있죠. (중략) 학급수가 줄지 않아서 남은 유효교실이 없는 거죠. (성남, D교사)

사전에 이게 어떤 수업이다 하는 사전공지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실라버스처럼 미리 아이들이 계획서를 보고 진짜 하고 싶은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생략) (용인, O교사)

정규로 편성된 자유학기 예산 외에 지역 교육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받는 지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었다. 남양주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악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고, 성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위해 초·중·고에 편성된 성남형 예산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었다. 안산시에서는 에코문화예술행복학교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교사들이 이에 대한 지원을 자유학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평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교육지원청에서 악기 및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는 학교에서 받는 자유학기 예산 말고 추가적으로 받는 예산 및 지원은 없다고 답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이랑 성남형 예산 두 곳에서 받는 것 같아요. (성남, C교사)

(에코문화)사업은 지역의 다른 기관이랑 연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지역에 계시는 예술 강사님들을 소개를 받을 수 있었고. 돈도 지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니까 자유학기제 이외의 예산도 쓸 수가 있었어요.(안산, H교사)

교장선생님이 직접 지원청과 협의해서 악기랑 환경개선과 같은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평, L교사)

요약하자면 모든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서로 배려해가며

계획적으로 분배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지역 교육청의 예산 및 악기 지원이 있는 경우 교사들은 자유학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교사들이 직접 운영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프로그램의 지도와 장소 및 환경에서는 강사채용과 프로그램 환경의 적합도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과 담당하지 않은 프로그램까지 포함한다. 교사들이 직접 운영한 프로그램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교사들이 직접 운영한 프로그램

교사	프로그램
A	합창
B	미디어 음악 감상
C	뮤지컬
D	합창
E	우쿨렐레
F	합창
G	합창
H	기타
I	뮤직비디오 제작
J	합창
K	기타
L	뮤지컬, 오케스트라, 밴드
M	기악합주, 톨차임과 노래하기
N	우쿨렐레
O	타악기 합주

1) 프로그램 목표 및 내용

프로그램의 목표는 교사마다 다양했다. 연주 기능, 음악의 즐거움, 취미개발도 있었으며 다양한 음악을 접하는 것에 목표를 둔 교사도 있었다. 이 외에도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역량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함양을 목표로 한 교사들도 있었으며 자신의 교육철학이 뚜렷하게 담긴 목표를 이야기한 교사도 있었다. 반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혹은 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목표를 설정했다고 답한 교사들도 있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아이들의 취미를 개발하고 나아가서 연주까지 가능한 게 목표고요. (중략) 또 악기 자체로 협업을 해서 하나의 곡을 완성하는 거. 합창도 어차피 협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협동심이라든지 같이 노래하면서... 그런 협업과정...(생략) (용인, M교사)

제 교육 목표가 약간... 음악은 그래도 조금 힐링이 되어야 하고 이론을 공부하는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그게 제 목표예요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좀 친숙한 대중가요를 통해서 뮤직비디오 속에 음악적인 요소를 찾아보고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음악요소를 찾아볼 수 있게... 지도를 했던 것 같아요. (포천, I교사)

글쎄요...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합창지도 밖에 없어서... (중략) 저는 음악이다 보니까 강사를 못 쓴다고 그래서... (고양, J교사)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합창, 합주, 간단한 연주, 음악 감상, 뮤지컬 관람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발표회를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교사들이 직접 운영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직접 지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

교사	프로그램	프로그램 활동 내용
A	우쿨렐레	간단한 연주, 반주하며 노래 부르기, 발표회
B	미디어 음악감상	음악과 관련된 영화 감상, 영화음악의 발전 및 역사에 대한 이해
C	뮤지컬	뮤지컬 관람, 뮤지컬 구성, 발표회
D	합창	합창, 합주, 컵타
E	우쿨렐레	간단한 연주
F	합창	합창
G	합창	합창, 발표
H	기타	간단한 연주, 발표회
I	뮤직비디오 제작	뮤직비디오 분석, 뮤직비디오 만들기, 상영회
J	합창	음악과 관련된 영화 감상, 합창
K	기타	간단한 연주
L	뮤지컬	뮤지컬 구성, 발표회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구성, 발표회
	밴드	밴드 구성, 발표회
M	기악합주	합주
	톤차임과 노래하기	합주, 합창
N	우쿨렐레	간단한 연주
O	타악기 합주	북웨커, 난타

2) 프로그램 지도

직접 지도하는 경우 교사들에게 티칭 노하우를 물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일대 일 지도, 흥미를 유발하는 악곡 선정, 발성 및 모션에 집중, 연속 수업을 위한 집중과 쉬는 시간의 조절, 게임제시 및 관계형성을 통해 수업분위기를 풀어주는 것 등 다양한 답변을 주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7>과 같

다.

<표 7 > 교사들의 티칭노하우

교사	티칭 노하우
A	거의 1대 1 레슨으로 진행했다.
B	모션이라든지 발성을 집중적으로 했다.
C	트렌드에 맞는 악곡을 선정해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하려고 노력했다.
D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려고 했다.
F	학생들이 2시간 연속수업을 힘들어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G	특이한 발성법을 사용한다거나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게임을 제시해 수업분위기를 풀어주었다.
H	개별지도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고, 강사선생님께 부탁해 작은 음악회를 열어 선생님 연주를 감상하게 했다.
I	음악시간은 자기 개성을 드러내는 표현수업이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는 한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했다.
J	프로그램을 바로 진행하는 것 보다 아이들과 관계형성을 먼저 하려고 했고 반에 들어오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노래하는 것 보다는 쉬는 시간도 적절하게 주려고 노력했다.
K	아이들이 악기 연주를 할 때 피아노를 항상 같이 쳐줬다. 그리고 잘못해도 검사만 받으면 도장을 받게끔 해서 도장을 다 모으면 사탕을 하나씩 줬다.
L	인원 구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
M	음악 수업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좋아서 해야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참여를 유도하려고 많이 노력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로 합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편곡도 직접 했다.
N	수준이나 학습 의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아이들끼리 매칭에서 연습을 시켰다.
O	직소 모형을 많이 사용했다.

강사와 팀 티칭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수업은 강사가 진행하며 교사는 강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강사선생님이 (...) 기본적으로 코드나 주법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하시고 시범 보이시고, 같이 전체적으로 해보는데 사실 악기니까 개인차가 크고 해서 반을 나눠서 개인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서 봐주고 교사는 저쪽에서 봐주고. (안산, H교사)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첫 번째로 강사 채용의 경로를 물었다. 강사채용의 경로는 크게 채용 공고, 교육청의 지원, 지역 기관 협력으로 나뉘었지만 직접 아는 사람을 통해 섭외하기도 했다.

우쿨렐레 선생님은 공고를 내기도 했고 제가 직접 아는 분 통해서 섭외를 했고. 바이올린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학교가 지금 방과후를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악기 지원 사업이랑 같이 동시에 해서 교육청에서 보내주신 강사선생님이 프로그램을 맡아주신 경우예요. (남양주, B교사)

저희는 아까 에코문화 예술학교 말씀 드렸잖아요. 거기서 보면 지역에 있는 예술기관이랑 협력할 수 있도록 해줘요. (중략) 그러면 거기서 저희학교의 어떤 수업 방향이나 시간을 보시고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또 그 분들이 서류를 넣어주셨어요. (안산, H교사)

강사를 채용할 때 어려운 점이 있냐고 질문했을 때 공개 채용 시 공고를 낸다고 해도 지원하는 수가 적으며, 외부강사들이 원하는 스케줄이 학교의 스케줄과 맞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한 강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강사와 학생들의 성향이 맞지 않을 때 어렵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음악교사가 아닌 다른 자유학기 담당자가 강사를 채용하고자 할 때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한 교사도 있었다.

공고를 낸다고 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안했는데 다행히 3분 정도 오셨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는데 한 분은 굉장히 프로필이 굉장히 좋으시고 경력도 굉장히 많으신데 약간 나이가 조금 있으셔서... 애들이 좋아 할까? 하는 고민이 들었고.(생략) (안산, F교사)

마지막으로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강사와의 수업연구에 대해 질문했다. 모든 교사가 수업연구를 따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상의를 하는 정도라고 답했다.

아이들의 특성이 다문화가 조금 많다보니까 그런 특성에 맞춰서 부탁드립니다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강사분이 하실 때도 입장을 계속 하는 상황에서 수업 그때 그때 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만 하고 있어요. (안산, E교사)

강사 채용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라면 고양시의 J교사와 K교사의 경우 공통적으로 음악교사는 음악 관련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제가 음악이면 음악 강사를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가 작년에는 음악에는 3반이 됐는데 음악 교사가 한 명이었던거ですよ. 그럼 이제 두 명은 강사를 써야 되는데 다른 선생님, 뭐 수학선생님이나 국어선생님이나 수업이 적은 선생님이 임장지도를 하시고. 음악관련 강사님을 쓰는데 이거는 다 자유 학기 예산에서. (고양, K교사)

요약하자면,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의 경우 악곡 선정, 게임 제시, 집중과

자유시간의 조절 등 학생들의 흥미와 집중 유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 또한 강사와 팀티칭을 하는 경우에는 전반적인 수업은 강사가 맡고 강사를 보조하는 선에서 지도를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강사에게 수업을 전체적으로 맡기는 경우에는 강사와 수업 연구를 따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프로그램 중간 중간 상황에 맞춰 상의하는 정도였다.

강사 채용에 있어서는 모집공고를 올려 공개채용을 하는 교사도 있었으며, 교육청이나 지역 기관을 통해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그리고 직접 아는 사람을 통해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은 없었으나, 다른 교과의 교사가 음악 강사 채용을 맡을 경우 본인의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 인력을 구하는데 있어서 접근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직접 채용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이 지원자의 수가 적어 걱정을 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지원자가 있더라도 학교에 적합한 강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답한 교사들도 있었다.

3) 교재사용 및 자료참고

교재사용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N교사는 기존에 학교에서 구입했던 악기 교본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N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사들은 교재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재구성 한다고 답했다. 자료는 크게 개인자료 혹은 외부 강사의 자료, 여러 교과서나 책을 참고, 경기도중등음악연구회 카페의 자료를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악보를 구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구해 수업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교재는 제가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어서... 아무래도 자유학기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활동지를 미리 다 만들어서 책으로 나눠주니까 애들이 조금 더 몰입도가 있더라고요.
(생략) (포천, I교사)*

4) 학생의 배정

프로그램 별 학생의 수는 대부분 25명에서 30명 사이였고, 이보다 적은 학교의 경우 15명 혹은 20명이었다. 그리고 단위가 큰 학교의 경우 30명에서 35명까지 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배정되는 것도 가장 먼저 학생들의 희망조사였고, 이후 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몰릴 경우 학생들이 모여 가위 바위 보를 하거나 담당 교사가 임의로 배정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또한 적성검사의 결과를 참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고양시의 J교사와 K교사, 용인시의 M교사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 자체가 달랐다. 대학교의 수강신청처럼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일단 애들이... 0000라고 해서 사이트 들어가서 대학교 수강 신청하는 거랑 똑같이 애들이 어떤 날에 몇 시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원이 반마다 정해져 있으니까. 원하는 걸 신청 못하면 다른 반에 본인이...
(고양, J교사)*

5) 운영 장소 및 외부 환경

프로그램별로 사용하는 장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프로그램별 활동 장소

음악실	A교사(바이올린), B교사(바이올린, 미디어 음악 감상), D교사(사물놀이), E교사(우쿨렐레), F교사(합창, 우쿨렐레, 뮤지컬), G교사(합창), H교사(기타), I교사(뮤직비디오 제작, 난타, 우쿨렐레, 피아노, 합창), J교사(합창, 뮤지컬, 기타), K교사(기타), L교사(밴드), M교사(기악합주), N교사(우쿨렐레), O교사(타악기 합주)
일반 교실	B교사(우쿨렐레), D교사(합창), H교사(우쿨렐레), K교사(오카리나), L교사(우쿨렐레, 오카리나, 리코더), M교사(톤차임과 노래하기)
특별실(다목적실, 방과후실, 시청각실, 뮤지컬실 등)	A교사(우쿨렐레), C교사(뮤지컬), E교사(난타), K교사(뮤지컬), L교사(오케스트라, 뮤지컬), N교사(바이올린)

모든 장소는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장소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반 교실과 특별실을 사용하는 경우 소음의 문제와 인터넷 연결 등의 문제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불편했다고 답한 교사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가 따로 떨어져 있어서 상관없었다는 교사들도 있었다.

저는 방음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웃음). 일단 다목적실을 저의 우쿨렐레 때문에 방음을 해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음향시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다목적실이 조금 상황이 열악해서... 노트북가지고 가서 인터넷이 연결도 안 되는 상태고 조금 그래요. (남양주, A교사)

(생략) 교실이 없어서 거기서 하긴 하는데 따로 떨어져 있어서...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단지 음악실이 아니라는 거지. (용인, N교사)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에 대해 물어봤다. 이에 교사들은 방음, 음향시설, 장소, 다양한 악기 구비 등 고루 답했다.

일단은 악기나 음향, 방음 이게 되어있어야지 마음대로 수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산, H교사)

마지막으로 활동 중 사용하는 악기 혹은 기자재의 수량과 관리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다. L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사가 악기의 수량에 맞춰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악기 수량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었고, 관리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L교사의 학교는 오케스트라, 밴드, 우쿨렐레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의 학교 중 가장 많은 악기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였다. 그렇지만 악기를 관리하는데 드는 예산이 많이 들어 교육하기에 이상적인 수준으로 관리가 힘들다고 답했다.

악기구입도 그렇고 관리하는데도 그렇고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거든요. 관리도 조금 체계적으로 안 되는 느낌이고. 금액이랑 관리문제에 있어서... 악기 상태가 조금 좋은 상태로 주어진다면 관리가 잘 되도록 운영을 하겠지만... 보통 이상적인 수준으로 교육하기에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양평, L교사)

정리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는 모든 학생들을 수용하기에 적합했다. 하지만 음악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 교실과 특별실을 사용한다고 답한 교사 중 대부분은 물리적인 환경 요소에 대해 음악 활동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일부 교사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교실이 따로 떨어져 있거나 근처 교실들도 음악활동을 해서 큰 불편함이 없었다고 답했다. 악기나 기자재의 상태의 경우 L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사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악기의 수량에 맞춰 학생들의 인원을 제한하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진행하고 있었다. 악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한 L교사의 경우에는 관리해야 하는 악기들이 많았고, 그 많은 악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외적 환경 요인으로는 모든 교사들이 골고루 방음, 음향, 장소, 다양한 악기 구비 등을 꼽았다.

(다) 프로그램 평가

1) 평가 방법

평가 방법은 모든 교사들이 관찰평가를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교사들은 프로그램 중간 혹은 마지막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발표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또한 O교사의 경우에는 관찰평가는 물론 학생 간의 상호 평가, 자기평가를 평가의 지표로 사용했다고 했다.

(생략)저는 명렬표에 몇 일자에는 이 아이는 어떻게 활동을 했고 어떻게 연습 일지를 적었는지 서로 상호평가를 하게 했거든요. 같은 모둠 내에서 자기도 스스로 평가하고 아이들도 서로를 평가해서 이 아이가 언젠는 장난을 많이 쳤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용인, O교사)

2) 평가 기준

모든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평가 기준을 활용한다고 답했다.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을 참고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M교사는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참고하지만 태도는 넣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게 이미 학년별 성취기준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에 준해서 하는 거지 그거를 막 벗어나서 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자유학기제라도. 태도는 안 넣어요. 연주를 하는 것만 보는 거고. 노래를 하는 것만. 기능적인 거 예를 들어 예술성, 감성 이런 게 들어가지만 태도가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용인, M교사)

3) 평가 시 어려운 점

C교사, K교사, N교사, O교사는 평가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서술식으로 작성하는 과정평가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 점수화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평가의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답한 교사도 있었다. 이외에도 평가 기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도 있었다.

상대적인 평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 자유학기를 얘기하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평가의 명확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쓸 때도 그냥... 그래서 그걸 체계화 시키면 좋은데 또 그게 힘들고 어렵죠.(웃음) (안산, H교사)

미술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남지만 이걸 작품이 안 남으니까. 영상을 찍으신다거나 하시는데 그러면 아이들 얼굴이 노출되니까 녹음을 하는데. 사실은 개인 핸드폰에 그 많은 자료를 다 녹음할 수 없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좀 까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렵죠. (용인, M교사)

즉, 대부분의 교사들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정 중심의 서술식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이 느끼고 있었고, 평가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기준을 세워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며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평가가 모호하다고 답했으며, 평가 기록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답한 교사도 있었다.

4) 입시 미반영에 대한 교사 인식

자유학기의 평가가 고등학교 입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나 이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고 답한 교사들이 있었다.

시행착오를 격어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저는 너무 평가가 없다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학력도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걸 열심히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크게 못 느끼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적당한 평가와... 조금 결합이 되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용인, O교사)

반면 입시 미반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교사도 있었다.

그럴 거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워낙 2학년에 올라오면 확실히 기초가 떨어져 있어요. (...)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이 생활지도에 되게 힘들어하세요. 애들이 성적에 안 들어가니까 수업도 늦게 들어가고... 그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통제가 힘든 거? (포천, I교사)

정리하면, I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사들은 자유학기 동안의 평가를 입시에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입시에 당연히 반영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학생들이 교과 지식을 학습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들도 있었으며,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긴장감이 전혀 없는 학교의 환경은 결국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 교사도 있었다.

5)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교사 인식

자유학기 동안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음악교과이기 때문에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상관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렇지만 평가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는 교사들이 있었다.

안 해도 좋은데 애들이 약간 이론적인 부분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애들이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많이 알아야 되겠다하는 갈증이 없어요, 이론적인 거에 대해서. 시험까지 안보니까 제가 열심히 가르쳐도 잘 습득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안산, F교사)

반면,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교사들도 있었다.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더 혼란스럽고. 그리고 학생마음과 부모마음이 또 다르잖아요. 부모님은 학원을 보내기에 힘들어하시고 그래요. 학교에서 교육을 안 받으니까. 학원에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좀 많이 들고. (...) 그래서 저는 지필평가라는 부분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어쨌든 수능이 존재하는 한에서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연습을 시키는 기회를 빼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좀 약간 그 부

분은 좀... 어떻게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닌 거 같
아요. (안산, G교사)

결국, 음악교과 안에서는 지필평가가 없어져도 그를 대신 할 평가들이 많
아 상관없지만, 음악 교과에 필요한 이론적인 부분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필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
인 교사들의 경우 음악교과 내에서가 아닌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 문제로
다음 학년이 되었을 때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6) 개선되어야 할 평가의 방향

대부분의 교사들이 평가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은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이에 따라 이 시기의 생활기록부가
고입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든지, 지필평가는 아니더라도 점수를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성취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외 평가 내용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답한 교사, 평가의 명확한 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
고 답한 교사들도 있었으며, 자유학기 평가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개
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전에 뭐... (...) 정말 잘하는 학생들만 세부특기사항을 써줬는데. 자유학
기제는(웃음). 그렇게 상관없이 다 써줘야 하니까. (...) 특징이 없는데 굳이
말을 만들어서 써줘야 하는 상황까지 나오니까... 그거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취지에 물론... 자유학기제가 공평하고 평등한 것도 있지만 약
간 좀...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용인, M교사)

그냥 그 학생을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역량에 맞
게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거를 어떠한 기준을 삼는 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명확하게 제시되면 좋을 것 같아

요. (성남, C교사)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생님들도 생각하시는 게 자유학기 때는 좀 편하게 수업을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중략) 계획서만 표면적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운영에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의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 학생들도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인식이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생략) (고양, J교사)

즉,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재 서술식의 과정중심 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적당한 긴장감을 위해 수행평가 정도의 성취평가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교사에게 서술식 평가에 대한 부담감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도록 평가 내용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도 있었으며 명확한 평가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라) 프로그램의 영향

1) 학생에 대한 영향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영향에 대해서는 음악성과 음악 외적인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 및 태도와 교사와의 관계 변화에 대해 물었다.

먼저, 모든 교사들은 음악성보다는 음악 외적인 정의적 측면에 대한 효과가 더 좋았다고 답했다. 음악성과 관련했을 때 일부 교사들은 교과 수업과 달리 한 가지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으며, J교사는 음악성과 같은 부분은 학생들마다 편차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외 정의적 측면에 대해 이야기한 교사들은 대부분 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변화, 성취감 및 자존감 그리고 자기관리 능력의 향상, 협업 능력의 향상 등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찰되었다고 답했다.

그저는 학생 별로 편차가 큰 것 같아요. 그니까 여기 와서 내가 얘기하는 거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발성이라든지 음감, 리듬감이라든지 개선된 학생들이 있었고. 아닌 애들은 그냥... 처음이랑 별 차이 없었어요. (고양, J교사)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음악들도 자발적으로 찾아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악의 감상의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성남, C교사)

아이들도 어쨌든 함께 합주를 하다보니까 서로 협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용인, O교사)

다음은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및 태도를 교과수업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교과수업보다 자유학기 활동의 분위기가 더 좋았다는 답변, 자유학기 활동은 노는 수업이라는 인식이 강해 산만해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답변이 비슷하게 나왔다.

학생들이다 보니까. 몸을 움직이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아무래도 활동적인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도 당연히 있지만. 대부분은 참여를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성남, C교사)

더 자유롭게 와요. 너무 자유롭게 와요(웃음). 그러니까 수업은 뭔가 수업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교과서에 학습지에 필기도구에 뭔가 준비를 하고 온다면 이걸 약간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강사를 썼을 때 그런게 더 해요. 왜냐면 교사가 아닌 외부에서 교사가 오고 하니까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이들이 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확실히... (안산, H교사)

마지막으로 자유학기 프로그램 이후 학생과의 관계 변화에 대해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교사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자주 만나다 보니까 친밀감이 형성되었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관계에 변화가 없었다는 교사들도 있었다.

좀 더 친밀해 졌고요. 아무래도 같이 제작을 하면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평소 교과 수업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도 저를 이해하고 저도 학생을 이해하고... 그래서 수업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포천, I교사)

정리하면, 교사에 의해 관찰된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영향은 음악에 대한 태도 변화, 성취감 및 자존감 향상 등으로 정의적 측면이 많았고,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한 가지 영역에 몰입을 하는 것에 대한 음악적 기능 향상이었다. 그리고 자유학기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및 태도는 프로그램이 활동적이고 학생들이 원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교과 수업에 비해 집중도가 높았다고 답한 교사들이 있었던 반면, 자유학기 프로그램이 수업보다는 노는 활동이라는 느낌이 강해 교과 수업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분위기이고 이에 따라 집중도가 조금 낮았다고 답한 교사들의 비율이 비슷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이후 학생들과의 관계 변화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잦은 만남을 통해 다른 학생들보다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고 답했지만, 일부 교사들은 자유학기 활동으로 인해 관계에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2) 교사에 대한 영향

프로그램이 미치는 교사에 대한 영향으로는 교수 능력의 향상, 교수 및 직업에 대한 성취감 혹은 만족감 그리고 체감하고 있는 업무의 양에 대해 물었다.

먼저 교수능력에 향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통한 성취감 및 자기개발, 그리고 실패경험에서 오는 자기 성찰, 밀착수업을 통해 아이들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답하며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교수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꼈다.

국악전공이니까 합창을 가르쳐본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 도전하는 거여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연구한다거나 주변에 전공하는 사람한테 막 물어보고, 그런 거를 많이 했었어요. 애들한테 재밌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 도전하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안산, G교사)

반면 일부 교사들은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지쳤던 부분, 이전에 했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점, 자신의 교수법에 대해 부족함만 느꼈다는 점 등을 들며 교수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웃음). 원하지 않는데 오는 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조금 힘든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두 시간 연달아 하니까 사실 저도 지치는 측면도 있었고. (생략) (고양, J교사)

프로그램을 통한 교수 및 직업에 대한 성취감 혹은 만족감에 대해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교사들은 감당해야 할 시수가 많아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느끼긴 하지만 그 만족도가 교과수업에 비해 덜 한다거나,

성취감을 느끼긴 하지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E교사의 경우에는 자유학기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꼽았다.

어...(한숨) 제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고.... 저는 차라리 제 전공과 관련이 있는 걸 하기라도 하지(웃음) 다른 분들께서는 저보다 더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생략) (안산, E교사)

마지막으로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맡고나서 체감한 업무의 양에 대해 물었다. 자유학기가 수업보다 부담이 없어서 업무가 오히려 줄었다고 답한 A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사들이 업무의 양이 조금 혹은 많이 늘었다고 답했다. 추가적으로 자유학기를 맡은 교사들에게 행정적인 업무의 경감 조치가 따로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자유학기제 총괄 업무를 맡았던 K교사를 제외한 모든 교사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서는 교사들 마다 맡고 있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양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으며 경감을 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업무의 양은... 아무래도... 늘었다고 ... 조금 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중략) 경감?? 학년마다 다르죠. 3학년을 맡으면 진학소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일학년 맡으면 그냥 자유학기제를 하는 거니까. 그냥 그게 내 업무다... 하고 가는 거고(웃음). (안산, H교사)

정리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교수 능력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답했으며, 성취감과 만족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일부 교사들은 많은 시수에 대한 부담감,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 자신의 노력과 열정에 비례하지 않는 학생들의 태도에 대한

회의감, 자유학기제의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체감한 업무의 양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조금 혹은 많이 늘었다고 답했으며 업무 경감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학교 내 모든 교사들이 공평하게 업무를 맡은 것이고 업무마다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마) 교사들의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 운영 경험

교사들이 2018년도 자유학기 프로그램 이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을 정리한 것은 다음 <표 9>과 같다. 이전 운영 경험에서 음악과 관련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교사는 제외하였다.

<표 9> 음악프로그램 이전 운영 경험

교사	이전에 운영했던 프로그램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생각되는 프로그램
A	킥타	우쿨렐레(현재 운영)
B	킥타, 보컬	킥타
C	합창,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F	합창만 3년	.
H	기악 합주, 합창, 바이올린	기타(현재 운영), 바이올린
J	합창	.
K	기타	.
M	합창, 핸드벨, 오카리나	합창
N	기타, 합창	X

이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물어봤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수월했다고 답했다. 이외 C교사의

경우 자신의 전공이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답했고, M교사는 학생들이 흥미를 쫓았다. 반면 N교사는 특별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는 자유학기 프로그램이 일반교과 수업 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별히 어떤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교과수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용인, N교사)

2. 자유학년제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인식

(가)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거나 주변 동료교사들과 자유학기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한다고 답한 교사도 있었으며,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려고 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좀... 사례집 같은 거 있으면 살펴보긴 했었어요. 다른 학교는 어떤 거 하는지... 괜찮은 게 뭐가 있을지... 거의 음악교사들 만나면 그런 거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유학기 뭐하세요? 그런 거(웃음) (안산, H교사)

원격 연수도 받고... 포천교육연구회가 있어요. 거기에 정기적으로 계속 가서 연수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계속 자기개발 하고 있고요. 수업 연구를 계속

하고 있어요. (포천, 1교사)

이처럼 대부분의 교사들은 음악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음악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사례나 연수를 찾아보면서 전문성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하며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예산, 환경 등 모든 부분에서 자유로울 때 진행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다. 원하는 프로그램과 이유에 대해 정리한 것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과 이유

교사	진행하고 싶은 프로그램	이유
A	뮤지컬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했을 때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오기 때문이다.
B	뮤지컬	종합예술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다.
C	오케스트라	교과수업에서 다루는 것들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 같다.
D	피아노 반주	학생들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에 대한 동경이 있다. 기본적인 반주 몇 가지만 알아도 굉장한 성취감을 느낄 것 같다.
E	오케스트라	그럴듯한 음악을 했으면 경험했으면 좋겠다. 음악에 대한 폭이 넓어질 것 같다.
F	전자음악 작곡	음악과 관련한 진로 부분에 있어서는 실용음악을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G	가야금 병창, 뮤지컬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해 보도록 하고 싶다.
H	밴드	학생들이 너무 좋아한다.

I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학생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듣는 클래식을 조금 더 익숙하게 듣는다.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싶다.
J	난타	순회 나갔을 때 난타반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었다. 그리고 강사께서 오면 아이들이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싶다.
K	국악 오케스트라	서양악기보다 연주하는 데 접근이 쉬워서 효과가 더 좋을 것 같다.
M	스마트기기 활용 작곡 수업	음악 작곡은 학생들이 경험해보기 힘든 부분인데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8마디에서 16마디 정도는 쉽고 간단하게 창작할 수 있고, 다른 과목이랑 연계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N	국악기	학생들이 국악기에 접할 기회가 없어 국악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진다.
O	뮤지컬	음악을 재능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다양한 방면으로 음악을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L교사는 위와 같은 질문에 다른 교사들과 다른 답변을 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던 음악은 종합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사, 악기, 환경이 충분히 제공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시작해도 잘 진행할 수 있겠죠. (양평, L교사)

L교사는 이미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뮤지컬, 밴드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에서 선뜻 운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예술특성화학교에 맞게 모두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 악기, 환경과 같은 충분한 지원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 자유학기 수업 방식과 교과수업 방식의 다른 점

자유학기 수업 방식과 교과수업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교사들에게 물었다. L교사, N교사, O교사는 수업방식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I교사는 자유학기 프로그램에 평가가 없어 교과수업보다 부담이 적다고 답했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교사들은 자유학기 프로그램에서 악기 수업을 할 경우 일대일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 한 영역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 결과물이 있다는 점, 활동 중심 수업, 평가영역의 차이, 교육과정의 자율화 등의 다양한 답변을 했다.

아무리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은 컸지만 교과를 할 때는 그래도 교육과정 기본적인 틀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술체육프로그램을 할 때는 정말 100퍼센트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남, D교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음악교과는 가창, 감상, 기악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해야 하는데 자유학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인 거를 깊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고양, J교사)

3) 자유학기제가 음악교과에 미치는 효과

자유학기제가 음악교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음악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음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자신감과 자기표현 능력이 신장되어 음악교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한 스스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프로그램 이후 연계성을 가지고 심화된 내용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좋았다는 답변들도 있었다.

한편, 음악교과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일부 교사들도 있었다. 이는 자유학기나 교과수업이나 진행방식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고, 프로그램

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효과 많이 봐요. (...) 조금 부끄러워하고 친구들 앞에 나서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애들이 많이 없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특히 음악교과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편이라 교과수업에서 많이 득을 보고 있어요. (남양주, B 교사)

4) 음악프로그램을 계획 및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혹은 힘들었던 적이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M교사, K교사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외 다른 교사들의 질문은 계획단계, 운영단계로 나누어 정리했으며 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 언급된 내용과 중복되므로 제외했다.

먼저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를 배워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고 답한 교사들과 운영에 대한 정보 부족,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답한 교사들이 있었다.

올해도 또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했던 거 이외에는 잘 생각이 안나요. 그래서 그때 했을 때... 그거 그냥 다시 할까? 아니면 새로운 거 뭐 하지? (...) 음악 교사라고 해서 모든 악기를 다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안산, H교사)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는 블록타임에 대한 부담감, 강사와 학생간의 사이에서 관계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한 교사도 있었으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안정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답한 교사 그리고 시수나 지원 부족 등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 환경에 대

한 어려움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환경이랑 인력이요. 이 부분은 진짜 개선 안 되면 자유학기제 안에서 음악 하는 거? 큰 이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양평, L교사)

한편, O교사는 음악교사가 강사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행정장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가 강사 지원을... 좀 많이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중략) 아무래도 음악교과다 보니까 당연히 음악선생님이 해야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음악전공을 했다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사지원을 조금 더 해주면 어떨까 했었던 것 같아요. (용인, O교사)

즉, 프로그램의 계획단계에서 새로운 것을 배워서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정보 부족, 아이디어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유지와 관련하여 블록타임 운영의 부담감, 학생과 강사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프로그램의 안정을 위한 반의 유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환경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나)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1) 자유학기제의 취지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유학기제의 취지로 진로탐색을 꼽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험, 자유가 있는 행복한 학교의 실현 그리고 음악을 보다 깊이 배워 음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는 것, 자신의 역량탐색 및 강화가 자유학기의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이들의 재능 발견. 진로 탐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서열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수업을 하자? 그리고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자? 그리고 뭐 배움 중심.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을 하자 그런 취지겠죠. (용인, N교사)

이어서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취지대로 자유학기가 운영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G교사는 진로교육이 확대된 부분에서 취지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교사들이 어느 정도는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에 대한 이유로는 현재 교사의 여건과 전문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좌우되고, 이에 따라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학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양한 직업군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수업이 항상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교과수업보다도 실패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유학기는. 왜냐면 더 풍부하게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안산, H교사)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개개인별로 원하는 게 다 개설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 교사 일인당 학생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애들이 다른 반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취지에 온전히 맞게 운영되는 학교가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고양, J교사)

한편 D교사는 사교육의 증가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더 가중된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비쳤다.

일학년 동안에 자유학기라고 해서 애들이 평가가 없잖아요. 평가가 없으니까. 지필 시험이 없으니까. (….) 그러니까 애들이 뭔가 산만해지고 그래요. 그러면서 학부모는 뭘 또 걱정 하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더 시켜요. 이때 사교육을 더 많이 시키자. 그러니까 애들은 애들대로 스트레스가 더 과증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많아요. (성남, D교사)

정리하면 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한 진로 및 직업 탐색, 역량 탐색 및 강화, 행복한 학교의 실현, 음악을 보다 깊이 배우고 즐겨워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고 답했다.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의 확대를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교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교사의 전문성에 따라 좌우되는 프로그램, 학교나 교사의 여건으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는 점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지 못하며 프로그램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 더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사교육의 증가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더 가중되어 자유학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도 있었다.

2) 자유학기제의 이점

자유학기제의 이점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시험 및 평가에 대한 부담 감소 그리고 시간과 예산의 확보로 더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 및 적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자기표현 능력이 신장되었다고 답했다. 또한 여러 친구들이 모여 수업을 하다 보니 의사소통역량이 함양되었다고 답한 교사도 있었다.

다양한 분야를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해보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거. 그것도 그렇고 여러 반 학생들이 모여면서 다양한 친구를 사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 (용인, M교사)

즉, 교사들은 자유학기제의 이점으로 시험 및 평가부담 감소로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 형성, 교과수업에 비해 시간 및 예산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및 소질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진로탐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제공된다는 점을 이야기 했다.

3) 효과적인 자유학기제를 위한 개선점

자유학기제를 위한 개선점으로 교사들은 다양한 반의 개설, 평가방법의 개선, 연구시간의 확보, 운영 장소의 확보, 프로그램의 지속성 및 연계성, 교사 전문성을 위한 연수의 쉬운 접근성, 프로그램 지원의 확대, 자유학기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답변을 했다. 이와 달리 직접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한 교사도 있었다.

우선 없어지는 게 제일... (웃음) 아니 아니, 이견 아니고요.(웃음) ...

(한숨) 뭐랄까... 이거를 왜 굳이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한테 이게 그렇게 도움이 될까? 합창만 주구장창하고, 우쿨렐레만 주구장창 한다고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가도 뭐, 애매하게 하고. 공정하지도 않고, 한 두 줄 그거 대충 써주는 걸로...(생략) (안산, F교사)

F교사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효과는 당연히 있겠지만 음악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즐길 수 있고 다양하게 배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은 다양하지 않고 선착순에 밀려서 억지로 오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으며 평가의 공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어 자유학기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의 중학교 현직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음악 선택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인식을 조사하여 자유학기제 음악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중학교 현직 음악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 운영현황이다.

첫째, 음악프로그램 개설 시 대부분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교의 여건이 충분 한가 혹은 자신이 맡아서 지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려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받는 예산은 충분하지만 추가적으로 활동 장소, 자유로운 강사 채용 등과 같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교사들은 직접적인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원자의 수가 적어 강사 채용에 대해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강사채용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이 확대되어야 하며, 지역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교사들에게 강사 채용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둘째,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교원 연수는 자유학기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교사가 대표로 받고 있었으며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맡은 다른 교사들은 담당교사의 전달연수를 통해 연수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청 및 학교의 행정장이 자유학기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선택연수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받지 않고 있었고, 대신 개인레슨을 받는 교사들이 있었다. 개인레슨을 받는 이유로는 연수를 진행하는 장소가 멀고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는 점을 꼽았다.

셋째, 대부분의 교사들은 서술식으로 기입하는 과정평가의 부담 혹은 평가의 객관성,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평가의 어려움을 느꼈다. 자유학기 기간에 평가 자료가 고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평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음악교과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학기는 ‘노는’ 학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과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한 평가의 개선점으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적은 비율이라도 성취평가를 도입하고 명확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교사들이 느끼는 평가에 대한 부담을 덜고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교사들에게 관찰된 학생들의 영향으로는 음악성과 관련된 부분보다 정의적 측면에 대한 부분이 컸다. 교사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고, 성취감을 통해 자존감 및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협업능력이 제고되었다고 느꼈다.

다섯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부분의 교사들은 새로운 도전을 통한 성취감 및 자기개발, 실패의 경험을 통한 자기 성찰 등을 통해 교수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통한 교수 혹은 직업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은 크게 느끼지 못했다. 이유로는 시수에 대한 부담, 자신의 노력과 열정에 비례하지 않는 학생들의 태도를 꼽았다.

여섯째,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업무 증감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업무가 늘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교사마다 업무가 다 다르고, 업무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 및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 인식이다.

첫째, 대부분의 교사들이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음악을 경험할 수 있고, 교과수업에서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한 가지를 깊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둘째, 음악프로그램을 계획 및 운영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에 대해 계획단계에서는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아이디어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고, 운영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흥미유지, 학생들과 강사의 관계 증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평가단계에서는 평가해야 할 대상이 많다는 점에서 서술평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자유학기제의 취지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꼽았다. 취지대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교사의 전문성에 좌우되는 프로그램, 학교나 교사의 여건에 맞춰 프로그램이 개설되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이 좁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더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넷째, 자유학기제의 개선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설, 평가방법의 개선, 연구시간의 확보, 운영 장소의 확보, 프로그램 지원의 확대, 프로그램의 지속성 및 연계성, 교사 전문성을 위한 연수의 쉬운 접근성,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 개선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 선택 음악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인프라 활성화 및 교원연수의 접근성 향상이다.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이 교사의 능력에 좌우되는 만큼 교사의 전문

성 신장이 중요하다. 학교의 여건과 교사의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밖에 없다면 지역 간 학교의 연계라든지, 지역교육청 혹은 지역 내 청소년 기관에서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정말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연수 말고 교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및 교수법을 제공하여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의 접근성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음악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활동 장소의 확보, 자유로운 강사 채용과 같은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사들은 현장에서 음악활동을 위한 장소가 부족하고, 음악교사는 프로그램을 직접 맡아야 한다는 인식 혹은 예산의 한계로 강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연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음악교사가 음악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채용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을 위한 교육청의 예술 강사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명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는 줄 세우기식 평가가 아닌 성장 평가, 과정 평가를 지향한다. 때문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성취기준을 가지고는 자유학기 취지에 맞는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교사들이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평가를 할 때 평가 기준을 세우는 것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자유학기 평가를 위한 평가지침을 명확하게 제공하거나 자유학기 우수사례집처럼 평가 우수사례집을 만들어 교사들의 평가 부담을 덜어줄 명확한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2016). 2016 교육과정 정책 추진 계획, 2016. 01. 08 보도자료.
-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2017). 2018 경기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 2017.10 보도자료.
- 경기도교육청(2015). 2015학년도 경기혁신형 자유학기제 운영 길라잡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 교육부(2013).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 2013. 05. 28
보도자료.
-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별책12, 고시 제2015-74호.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고시 제 2015-74호.
- 교육부(2015).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안). 서울: 교육부, 2016.
11. 25 보도자료.
- 교육부(2017).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 서울: 교육부, 2017. 09.
12. 보도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4). OECD 교육지표, 통계자료 SM 2014-0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고재성(2008). 진로교육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양소영(2014). 꿈의 수업 자유학기제, 아일랜드에서 찾다, 서울: 미디어
숲.
- 염유식(2014). 2014년도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조사결과
보고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서울: 한국방정환재단.

- 정연근 외 6명(2015). **중학교의 자유학기 교육과정 실행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나라, 최지원(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27(3), 199-223.
- 이정인, 유재봉(2016). 자유학기제의 ‘자유’의 의미와 교육적 방향 탐색, **교육학연구**, 54(4), 1-20.
- 조성기(2011). 미래사회를 위한 초·중등학생의 음악 역량 연구, **음악교육공학**, 12, 1-15.
- 조슬기(2017). 서울·경기 지역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의 실태 및 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해인(2018).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교 음악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경화(2018). 자유학년제 음악수업에 대한 음악교사와 중학생들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원(2016). 2015년 서울형 자유학기제 연구·희망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현황 조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2018). 중학교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 분석-2017 울산광역시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서운(2016).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회과 교사들의 인식과 사회과 교육의 변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꿈끼 www.ggoomggi.go.kr , 2019.05.09.

ABSTRACT

Investigation of the Free Semester Music Program Operation and its Teachers' Perceptions

Shin Eun Bee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eek methods of improving Free Semester music programs through an investigation of the Free Semester music elective programs operated in Gyeonggi-do Province and the teachers' perception of the program. To achieve the objective, in-depth interviews of 15 current music teachers have been conducted. All interviews were analyzed on Microsoft Excel based on their transcrip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o further diversify Free Semester music programs, regional infrastructure must be improved and teachers must have more opportunities to develop their expertise through training. Schools and institutions for youths in the region make liaisons to create and share programs, giving students more options from which to choose their electives. Teachers should be able to access training whenever and wherever.

Secondly, further support towards improving the efficiency of the music

programs is required. While teachers thought that the budget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sufficient, they still felt a shortage of space designed for teaching music, and challenges hiring music teachers. As such, more venues that are fit for music programs must be secured, and more teachers need to be hired for the operating music programs.

Thirdly, there needs to be a highly objective performance index. Free Semester music program teachers were experiencing difficulties giving students their evaluation on performance in a narrative manner. A objective basis that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Free Semester program such as a clear evaluation guideline or an evaluation best practice booklet will help lighten the teachers' the burden in giving students an a fair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부록 (인터뷰 질문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음악교육 전공하고 있는 신은비입니다. 오늘 진행할 인터뷰는 경기도지역 자유학기제 음악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교사인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모든 정보와 인터뷰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신원을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삭제되거나 다른 내용으로 바뀌어 기재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가 종료되면 일정기간 후 자료를 폐기할 것입니다.

1. 일반적 사항

- 1-1) 선생님의 교육경력은 몇 년인가요?
- 1-2) 선생님의 구체적인 전공은 무엇인가요?
- 1-3) 근무하시는 학교가 경기도 어느 지역에 있나요?
 - 1-3-1) 학교나 지역의 특색이 있나요?
- 1-4) 현재 자유학기를 실시하고 있는 학기는 몇 학년, 몇 학기 인가요?
- 1-5) 자유학기제 활동 유형 중 음악 관련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유형은 무엇입니까?
- 1-6) 지금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 유형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1-7) 학교에서 제일 신경 쓰고 있는 자유학기 중점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 1-8) 학교에 개설 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 1-9) 그 중에서 선생님께서 관리하는 음악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1-9-1) (직접지도 외 프로그램) 어떤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1-9-2) (직접지도 외 프로그램) 프로그램은 어디서 진행하나요?
 1-9-3) (직접지도 외 프로그램) 지도는 누가 맡아서 하나요?
 1-9-4) (직접지도 외 프로그램, 강사채용) 어떤 경로를 통해 채용하시나요?
 - 채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 강사선생님과 따로 수업연구를 하시나요?

2. 프로그램 내용

- 2-1) 선생님께서 직접 운영하셨던 음악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2) 직접 운영하셨던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2-3) 운영하셨던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2-3-1) 목표설정은 누가 하나요?
 2-3-2) 그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2-3) 운영하셨던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의 유형 중 어떤 것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인가요?

3. 프로그램 계획

- 3-1) 프로그램을 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3-2) 프로그램 계획이 결정되고 나면 계획서는 언제 작성하시나요?
 3-2-1) 프로그램 계획 시 어떤 점을 가장 고려하시나요?
 3-2-2) 프로그램 승인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3-3) 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시나요?

- 3-3-1)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는 계획서가 있나요?
- 3-3-2) 계획서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나요?
- 3-3-3) 계획서의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3-4)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연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필수연수, 선택연수)

- 3-4-1) (있다면) 어떤 내용의 연수를 받았나요?
 - 연수에서 도움을 받은 내용이 있나요?
 - 연수 내용 중 부족했던 내용은 없었나요?
- 3-4-2) 연수가 새로 개설 된다면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나요?

3-4)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는 어떤 지원을 해주나요?

- 3-4-1) 예산은 얼마나 지원받으시나요?
 - 지원 받으시는 예산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충분하신가요?
 - (부족하시다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가요?
 -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 3-4-2) 학교가 어떤 부분의 지원을 더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3-5)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학교 말고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특별예산 신청 여부)

- 3-5-1) (활용을 하신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어떤 경로를 통해 확보하시나요?

3-6) 프로그램 운영 시 사용하는 교재는 무엇인가요?

- 3-6-1) (교육용 서적) 서적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 하시나요?
(별도 제작) 자료는 어디서 구하시나요?

4. 프로그램 실행

4-1) 선생님께서 맡으신 음악프로그램의 주당 시수는 어떻게 되나요?

- 4-1-1) 음악프로그램 말고 교과수업에서 맡으신 시수는 어떻게 되나요?

4-1-2) 시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4-1-2-1) (적다 혹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시수?

4-2) 프로그램은 누가 지도하나요?

4-3) 프로그램의 학생 수는 어느 정도 인가요?

4-3-1) 학생들은 어떻게 배정 되나요?

4-4)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는 어디가요?

4-4-1) 학생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장소인가요?

4-4-2)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소의 음향시설, 방음과 같은 다른 외적인 요소들은 적합한가요?

4-4-3) 음악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 요인은 무엇인가요?

4-5)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악기 혹은 기자재의 수량은 학생들이 모두 사용하기에 적합한가요?

4-5-1) 관리 상태는 어떤가요?

4-5-2) (수량 부족, 좋지 않음) 그렇게 관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4-6) 지도 방식에 있어서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5. 프로그램 평가

5-1) 자유학기는 기본적으로 과정중심 평가로 서술형으로 기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는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5-1-1)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5-2) 평가 기준을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인가요?

5-3) 평가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5-3-1) (있다면) 어떤 점에서 어려우신가요?

5-4) 자유학기의 평가는 입시에 반영되지 않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5) 지필평가 방법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5-6) 효과적인 자유학기가 되기 위한 평가의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 학생에 대한 영향

6-1) 음악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효과는 어떤가요?

6-2) 음악프로그램이 인성, 진로탐색, 자존감, 음악에 대한 흥미 등과 같은 부분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6-3) 프로그램 진행 시 학생들의 반응 및 태도는 교과수업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6-4) 자유학기 프로그램 진행 후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7. 교사에 대한 영향

7-1) 자유학기 운영을 통해 선생님의 교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7-1-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7-2) 자유학기 운영을 통해 교수 및 직업에 대한 성취감 및 만족도가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7-2-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7-3) 자유학기를 맡으시면서 선생님이 체감하는 업무의 양은 늘었나요, 줄었나요?

7-3-1) 자유학기를 맡은 교사들에게는 따로 업무를 경감해 준다든지 하는 조치가 있나요?

8. 교사 경험

8-1) 선생님께서 현재 운영하시고 계신 프로그램 말고 이전에 운영했던 자유학기 프로그램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8-1-1) 그 중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됐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8-1-2)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9. 자유학기제 교사 인식

9-1) 선생님께서는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9-1-1) 지원, 예산, 환경부분에서 자유롭다면 진행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나요?

9-2) 선생님이 생각하는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9-2-1) 현재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9-3)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자유학기제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9-4) 자유학기제가 음악교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9-4-1) (있다 혹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9-5)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자유학기의 수업 방식과 교과수업 방식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9-6) 자유학기 음악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 혹은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 9-7) 효과적인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개선되거나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